

# “검사·형사 드라마 또?... 지켜워” 강력사건 소재 봇물



“또 검사랑 형사야?”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시청자들이 심심치 않게 던지는 불만이다. 검사와 변호사, 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되며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종방했거나 방송을 앞둔 드라마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검사와 형사 등이었다. 올해 초 SBS ‘피고인’, ‘속삭말’을 시작으로 MBC ‘와수꾼’, KBS

## 로코 →의사 이어 새 트렌드로 시청자 ‘식상’...시청률도 하락

2TV ‘추리의 여왕’, SBS ‘수상한 파트너’ (오른쪽 사진) 등의 주인공 직업이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N 주말극 ‘비밀의 숲’의 남녀 주인공의 직업은 각각 검사와 형사고, MBC 주말극 ‘도둑놈, 도둑님’과 JTBC 주말극 ‘볼레로’에 있는 그제 속 남자 주인공 직업도 각각 검사와 변호사다. 하반기 방송되는 배우 이종석 주연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역시 검사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고, 배우 조정석이 출연하는 드라마 ‘투깝스’는 제목에서 알 수 있

듯 형사의 이야기다. 이는 강력 사건을 다룬 장르물이 드라마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며 벌어진 현상이다. ‘시크릿 가든’, ‘별에서 온 그대’ 가 큰 성공을 거둔 후에는 판타지를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가 활개를 쳤고 몇몇 의학 드라마가 성공하자 의사를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로 급격하게 흘렀다. 지난해 tvN 드라마 ‘시그널’이 화제를 모은 후에는 장르물로 불꼬가 바뀌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다. 각종 강력사건과 권력자들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자, 대

중은 드라마를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에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 대표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 정의롭고 능력있는 검사나 형사 등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대중은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직업군을 다룬 드라마가 경쟁적으로 제작되며 시청자들은 이미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배우 최진혁 주연 ‘터널’이 6%대 시청률로 역대 OCN 드라마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후에는 정체 상태다. 이 대표는 “‘비밀의 숲’ 등이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4%대 시청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이 비슷한 포맷과 직업군을 다룬 드라마에 이미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효리네민박’ 관찰예능의 아주 잘된 예



관찰예능은 스토리의 재미보다는 출연자의 매력에 훨씬 더 중요하다. 말하자면 사람이 관찰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인물 섭외가 성패를 상당 부분 좌우한다.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거나 ‘끼’가 있다고 해서 주목받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 점에서 JTBC ‘효리네 민박’은 관찰예능의 아주 좋은 예로 꼽힌다.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부분, 예능의 재미를 위해 동원되는 부분들이

효리의 평소 거침없고 솔직한 모습이 ‘효리네민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효리가 직원 아이유를 데리고 바닷가에 산책을 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억지로 찾으면 안된다.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사람이 오더라”고 말하고 23일 방송에서는 남편 이상순에게 “지은이가 희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은이랑 같이 갔다와. 지은이가 내가 보니까 되게 사소한 경험 없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후배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배려 없는 불가능한 말이다. 이효리는 아이유가 이번 음반에서 아날로그 분위기가 훨씬 좋기는 ‘방편지’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시청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 ‘효리네 민박’에는 이효리 이상순 아이유라는 연예인과 일반인 민박객들이 있다. 일반인들도 그 사이에 충분히 들

어갈 수 있다. 아이유는 일반인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준다. 연예인들끼리, 또 연예인과 그 가족끼리 진행되는 관찰예능들은 일반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심정적으로라도 공감하며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만약 ‘효리네 민박’도 그랬다면 이효리 음반을 띄워주기 위한 또 다른 마케팅이라는 반응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실력 ‘효리네 민박’ 기획 이효리 음악 마케팅 치열이 있다고 해도, 다른 장치들을 잘 해놓아 단순 홍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효리가 1회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올 민박 손님에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심심함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할 때부터, 프로그램 방향을 잘 잡은 듯 했다. ‘효리네 민박’도 ‘윤식당’처럼 여가와 여행을 포함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또 이런 여행을 통해 어떤 가치를 깨닫는 게 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있다.

## #NCI #프로파일링 #박진감

### ‘크리미널마인드’ 꿀잼 키워드



각 등을 가려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프로파일링 범법현장을 통해 드러난 범인의 심리적 상태를 포착, 범인의 유형을 추론해 내는 최첨단 수사방식. 보통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심리지만 NCI 요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따라 마인드맵을 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다. #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올 여름 기대작 tvN 수목 드라마 ‘크리미널마인드’의 첫 방송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기 미드 ‘크리미널마인드’를 전세계 최초로 리메이크해 화제를 모은 tvN ‘크리미널마인드’는 이제껏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진 적 없었던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구현해낸다. 전해서 이목이 집중된 상황. 초미의 관심사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국판 범죄 심리 수사극 tvN ‘크리미널마인드’를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짚어본다. # NCI 국가범죄정보국 범죄행동분석팀 NCI(이하 NCI)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테러리스트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수사하는 조직. 범죄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분석한 철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미확인범의 행동, 인지, 생

2000년 초반부터 10년 동안 총 11건, 21명의 여성과 남성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리퍼. 그는 어느 날 돌연 다시 나타나 NCI 팀장 강기형(손현주 분)의 가족을 위협하며 살인을 다시 시작한다. 예측불가능한 연쇄 살인마에 NCI가 어떻게 맞서며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지, 촌촌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이에 tvN ‘크리미널마인드’는 손현주(강기형 역), 이준기(김현준 역), 문재원(하선우 역), 유선(나하영 역), 이선빈(유민영 역), 고윤(이한 역), 김영철(백산 역) 등 탄탄한 배우진은 물론 ‘아이리스’의 양윤호 감독과 ‘굿아이프’의 이정호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아 명실상부한 tvN 장르물의 명맥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올 여름 시청자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tvN 수목 드라마 ‘크리미널마인드’는 오는 28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된다.

## ‘덩케르크’,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150만 돌파 눈앞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가 개봉 첫 주 한미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했다. 전작인 ‘인터스텔라’보다 높은 흥행 수익

을 거두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집계 따르면 ‘덩케르크’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1만 9천8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134만9천295명으로, 150만 명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덩케르크’는 북미에서 505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스텔라’의 개봉 첫 주 성적인 4751만 달러보다 높은 수익이다. 또한 46개 국가에서 일제히 개봉해 월드와이드 1억 5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중 북미를 제외하고

영국에 이어 한국이 월드와이드 흥행 2위를 기록하면서 놀란 감독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특별한 사랑을 증명했다. ‘덩케르크’는 연출과 편집 등 기술적인 면에서 ‘마스터피스’다. 생생한 사실감과 긴장감, 강렬한 서스펜스와 감동까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개봉 후 전 세계 영화 팬들은 놀란 감독의 특성과 행보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적으로 극장에서 느끼는 경이로운 체험이자 전장 한 가운데 놓여있는 듯한 현장감에 감탄하고 있다. ‘덩케르크’는 1940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탈출 작전을 그린 실화이다. 리얼리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300여 명의 배우가 출연했고 실제 덩케르크 작전에 참여한 민간 선박 13척과 스핏파이어 전투기를 동원해 IMAX와 65mm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 톰 허디, 케네스 브래너, 킬리언 머피와 신인배우 핀 하이트헤드, 해리 스타일스 등이 실감나는 열연을 펼쳤다. ‘인터스텔라’, ‘인션션’, ‘다크 나이트’ 시리즈 등을 만든 놀란 사단 스태프들이 참여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는 놀란 감독과 다시 한 번 경이로운 음악들을 완성했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음력 6월 3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p><b>▶ 쥐띠</b> 36년생 행운이 찾아온다.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p> <p><b>▶ 돼지띠</b>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49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p> <p><b>▶ 호랑이띠</b>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p> <p><b>▶ 토끼띠</b> 39년생 안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p>	<p><b>▶ 용띠</b> 40년생 외출을 삼가라. 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p><b>▶ 닭띠</b>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5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89년생 꿈을 접지 마라.</p> <p><b>▶ 말띠</b> 42년생 가까이 집 주위를 맴돈다. 54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8년생 손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p> <p><b>▶ 양띠</b>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55년생 뜻밖의 재물이 있다. 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 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p>	<p><b>▶ 원숭이띠</b> 32년생 출입을 삼가라. 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p> <p><b>▶ 사슴띠</b>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p><b>▶ 개띠</b>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p><b>▶ 돼지띠</b>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 마라. 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p>
---	---	---